■민족문화연구 제107호(2025.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65-204.
http://doi.org/10.17948/kcs.2025..107.165

1931년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일제침략서사의 형성과 강화를 중심으로—

이용운(李龍雲)**

목 차

1. 머리말
2. 중국언론의 만보산사건 규정
3. 사건의 맥락과 일제침략서사
4. 기억과 일제침략서사의 강화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31년에 발발한 만보산사건 및 배화사건(만보산사건으로 통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탐색한 연구이다. 필자는 사건이 발발했던 시점의 신문잡지는 물론 만주사변 이후인 1930년대에 발간된 민족주의적 서적들, 나아가 상대적으로 최근인 1980-90년대의 회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인들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어떤 거시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하나의 사건이라도 어떻게 서사를 구축하고 어떠한 구도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상(史像)이 도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기록을 남긴 주체의 다양성과 6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 속에서도 두 사건을 일제의 음모와 계획적인 침략의 결과로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일제의 장기적인 중국침략이라는 서사를 바탕으로 사건에 의미

* 본 논문은 2025년 1월 17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회 한국학포럼 中 '젊은 한국학 워크숍(제5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원고이다. 발표 및 논문투고의 기회를 주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논문 심사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31년 7월 당시 다수의 중국언론은 만보산사건을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라는 국가(민족)의 대립구도 속에서 해석했으며, 만주사변과 함께 이는 메이지 시대 이래 중국침략의 한 단계이자 동북강점의 시작으로 여겨졌다. 사건의 우발성이나 중국-일본-조선인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대신, 일제의 침략과 중화민족의 저항이라는 거시적 서사 속에서 만보산사건이 서술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인식은 중일전쟁과 인민공화국을 거치며 한층 강화되어 경험자의 회고는 물론, 오늘날 중국학자들의 글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한편 조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제의 억압을 받는 조선인들을 동정하고 반제국주의 투쟁의 동지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멸시하거나 일제의 앞잡이로 증오하는 등 다면적인 감정이 혼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만보산사건, 배화사건, 만주사변, 역사인식, 한중관계, 중일관계

1. 머리말

일제가 본격적인 동북(만주) 침략을 앞둔 시점인 1931년 7월 발발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그리고 해당 사건의 연속이자 후폭풍에 해당하는 배화사건(排華事件)에 대해서는, 일찍이 1970년대 박영석이 선구적인 연구를 제출한 이래 적잖은 성과가 축적되어왔다.[1] 여기에서 만보산사건은 중국 길림성 장춘현(吉林省 長春縣)의 만보산 지역에서 조선인(한인) 농민들의 토지임대 및 관개수로 공사를 발단으로 일어난 조선농민-중국주민-일본군경의 충돌을, 배화사건은 약간의 부상자만이 발생했던 만보산사건이 중국인들의 조선농민 학살사건으로 잘못 전파되며 발생한, 조선화교(朝鮮華僑, 당시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과 박해를 가리킨다.[2] 『리턴보고서(Lytton Report)』에 따르면 사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박영석, 『만보산사건 연구-일제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아세아문화사, 1978. 박영석의 연구는 단순히 선구적일 뿐 아니라, 사료의 수집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의 파악과 정리에서도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도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서술함에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경우 박영석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2) 배화사건은 '화교배척사건'이나 '반중폭동'등으로도 불린다. 본 논문에서는 '배화사건'으로 칭하였다.

> 7월 1일의 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발생했다. 이날 관개수로로 땅을 절단당한 400명의 중국 농민들은 농기구와 창으로 조선인들을 몰아내고 관개수로의 대부분을 메워버렸다. 이에 일본영사관 경찰은 폭도들을 내쫓고 조선인을 보호하고자 발포했으나 피해는 없었다. 중국농민은 물러나고 일본경찰은 조선인이 수로와 이통강의 둑을 완성할 때까지 현장에 주둔했다. 그러나 만보산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것은 조선에서의 야기된 이 사건에 대한 반동이었다. 일본어와 조선어 신문에 기재 보도된 만보산사태, 특히 7월 1일 사건의 과대한 보도결과는 조선 전역에 일련의 격렬한 반중국 폭동을 야기시켰다. 이 폭동은 7월 3일 인천에서 시작되어 급속히 다른 도시로 퍼졌다.[3]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 동북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만보산사건과 조선에서의 배화사건은 별개의 사안에 가깝고, 그렇기에 전자를 '좁은 의미의 만보산사건', 후자를 '넓은 의미의 만보산사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4]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은 공교롭게도 1931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九一八事變) 직전에 일어났던, 한중일 삼국인이 모두 관련된 사건이자 재만(在滿)조선인과 조선화교라는 소수자가 박해를 당했던 비극으로, 동북(만주)이라는 공간의 복잡성과 더불어 이민 및 민족갈등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찍이 다양한 분야(한국사, 동양사, 국문학, 중문학)의 연구자들이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 관심을 가졌으며, 2016년에는 기존 역사학계의 연구 동향을 정리한 글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박영석을 비롯한 초기연구는 만보산사건을 일제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며, 배화사건 또한 일제의 한중 민족갈등 조장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조선인들의 반중감정이나 화교 노동자를 둘러싼 갈등과 같은, 식민지 조선 내부의 민족적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는 경향이 한층 강하게 나타났다고 한다.[5] 연구의 범위 역시 단순히 1931년의 두 사건을 검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를 둘러싼 중일 외교 관계를 고찰한 논문,[6] 배화사건의 배후에 존재했던

---

3) 박영석 역, 『리턴보고서』 탐구당, 1986, 138면.
4) 윤상원, 「한국 역사학계의 만보산사건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문학연구』 5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8-10면.
5) 위의 글, 12-17면.
6) 손승회, 「지역너머의 만보산사건」, 『인문연구』 53,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경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석,[7] 조선총독부의 화교 노동자 관리정책에 대한 탐색 등이 시도되었다.[8] 아울러 일제강점기의 조선화교를 고찰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1931년의 배화사건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니,[9] 해당 폭동이야말로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10] 요리에서 제조업까지 그들의 경제활동 전반에도 지대한 타격을 주었던,[11]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화교 쇠락의 결정적인 계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도 영국 외교문서라는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연구가 이루어졌고,[12] 경제사적 관점에서 화교 노동자의 존재 자체보다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불황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배화사건의 핵심 배경이었음을 지적한 논문도 나왔다.[13] 당연하지만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의 당사자인 한중일의 다양한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던 연구도 적지 않는데, 당시 조선의 대표적 민족언론이었던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의 보도를 비교 분석하거나,[1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만보산사건 인식과 대응에 대한 고찰,[15] 해당 사건을 둘러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인식 확인,[16] 배화사건 전후 일제당국의 대응에 주목한 연구 등이 이에 속할 것이

---

7) 정병욱, 「식민지 조선의 반중국인 폭동과 도시 하층민」, 『역사와 담론』 73, 호서사학회, 2014.
8) 강진아, 「조선총독부의 화교 노동자 입국 관리와 중국언론」, 『중국근현대사연구』 59, 중국근현대사학회, 2013.
9) 이은상, 「원산화교와 배화폭동」, 『중국근현대사연구』 72, 중국근현대사학회, 2016; 이은상, 「식민지 조선 평양화교의 실태」, 『동양학』 8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2; 이정희,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동양사학연구』 135, 동양사학회, 2016.
10) 배화사건의 피해규모는 추산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중국측은 사망142명 부상546명 실종91명에 재산피해도 416만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선총독부는 사망119명 부상195명만을 인정하였고, 리턴보고서는 사망127명 부상393명 재산피해 250만으로 기록하였다. 정병욱, 앞의 글, 2014, 318면.
11) 이정희, 『한반도 화교사』 동아시아, 2018, 188-216; 312-322; 396-399; 433-436; 486-490면.
12) 강진아, 「영국 외교문서로 재구성한 1931년 만보산사건과 조선 반중폭동」, 『동양사학연구』 156, 동양사학회, 2021.
13) 한상협, 「1931년 반중폭동의 재검토」, 『동양사학연구』 167, 동양사학회, 2024.
14) 민두기, 「만보산사건과 한국언론의 대응」, 『동양사학연구』 65, 동양사학회, 1999.
15) 김주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만보산사건 인식과 대응」, 『동국사학』 7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16) 윤상원, 「만보산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다.[17] 특히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이 모두 중국(인)과 불가분의 관계였던 만큼 중국측의 입장과 조선인식을 검토한 연구들도 행해진 바 있다.[18]

다만 이처럼 상당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었음에도, 필자는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각 및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여전히 규명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국공양당(國共兩黨)의 반응에 집중하거나 『申報』와 『大公報』로 대표되는 소수의 유력지를 정리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초의 민국시기(民國時期)는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언론이 공존하던 다원성의 시대였던 만큼, 당대 중국인들의 인식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신문잡지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만보산사건이 일어났던 현지에 해당하는 동북-화북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東北商工日報』·『東三省民報』·『北平晨報』·『華北日報(官營)』 등의 신문을 함께 검토하고, 나아가 『宣傳週報』·『人生半月刊』·『日本研究』·『互助週刊』·『新民旬刊』·『國民週刊』·『中國雜誌』에 이르기까지 잡지에 나타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의 모습까지 정리해 보았다. 특히 잡지는 신문과 달리 충돌이 폭발한 바로 그 시점이 아닌 최소 한주에서 몇 개월 이후의 반응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사건 혹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란 결코 특정 시점에 고정되는 무언가가 아니고,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거나, 장기적인 역사서술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즉,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둘러싼 중국인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사건이 발발한 직후인 1931년 당시에 한정하여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주사변 이후 중국인들이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나아가

17) 최병도, 「만보산사건 직후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일제의 대응」,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18)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 『중국사연구』 31, 중국사학회, 2004; 손승회, 「만보산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 28,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7; 윤휘탁, 「만보산사건 전후 동북아의 민족관계와 민족모순」, 『역사학보』 210, 역사학회, 2011; 이준식, 「만보산사건과 중국인의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오늘날(중화인민공화국) 해당 사건이 어떻게 기억 및 기술되고 있는지까지 통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는 1930년대 발간된 동북문제 혹은 중일관계 서적인 『日本與中國』·『東北視察記』·『中日的舊恨與新仇』에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탐구하는 한편, 다양한 항일 소책자들, 이를테면 『日本侵略中國實錄』·『中國國恥史研究概要』·『反日警鐸』·『帝國主義侵略中國史略』등에 이르러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이른바 '일제침략서사'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음을 논증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편찬의 주체는 대부분 관측(국민당)이었으나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지식인들의 관점뿐 아니라 대중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간접적이나마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제4장에서는 1980-1990년대 발간된 회고자료를 토대로, 과거 두 사건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이들이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개인적 회고는 당연하게도 공문서와 동등한 권위를 지니기 어려우며, 각종 착오나 심지어 의도적 왜곡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19] 일례로 한 구술자의 나이는 이미 회고자료가 작성된 1991년 기준 82세에 달하였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오류야말로 현대중국에서 지난날의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집단적 인식이 무엇을 누락 또는 과장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덧붙여 이를 중화민국 시기와 만주사변을 다룬 전문적인 역사서들과 비교함으로써, 개인적 기억과 역사가의 서술 사이의 동이(同異)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필자는 여태까지의 선행연구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중국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931년

19) 이와 관련하여 '구술사'의 연구 현황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혜경, 「구술사 : 기록에서 역사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한일민족문제학회, 2015; 윤택림, 「한국 근현대사 연구동향 : 구술사와 한국 현대사」, 『현대사광장』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구술사 자료를 중심으로 근대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살펴본 연구의 사례로는 윤휘탁, 「근대 조선인의 만주농촌체험과 민족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아울러 조금 시간이 흐른 정리이지만 구술사를 통한 중국의 중일전쟁(항전구술사) 연구 동향으로는 배한극 외, 「중국구술사의 최근 연구동향」, 『역사교육논집』 44, 역사교육학회, 2010.

의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과 역사적 서사의 성격을 한층 장기적인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사건이 발발한 직후 언론이 그를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만주사변의 발발과 함께 두 사건이 어떤 맥락 속에서 서술되었는가, 그리고 현대중국에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의 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울러 일련의 사건 전개에서 한국인이 중요 주체로 존재했었던 만큼 당대 중국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보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 분야의 연구를 참고하자면 하나의 사실(史實)도, 어떻게 서사를 구축하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상(史像)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일례로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삼은 문학작품의 경우, 이태준의 「농군」이 수로 작업을 중심으로 조선농민-중국농민의 대립을 핵심 서사로 삼았다면, 안수길의 「벼」는 후반부에서 조선농민-중국정부의 갈등을 부각하였고, 반대로 중국인 작가 李輝英은 「萬寶山」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이 연대하여 항일투쟁에 나선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려내기도 하였다.[20] 한편 일본의 伊藤永之介은 동명의 소설에서 만주에서 핍박받는 조선농민의 비참한 처지에 연민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중국인들은 선량한 조선인을 괴롭히는 존재로, 일본인은 조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각각 묘사한 바 있다.[21] 따라서 본 논문은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 대한 사실(史實)의 재구성보다는, 중국인들이 해당 사건을 바라보며 만들어낸 사상(史像)에 집중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즉, 자료의 측면에서는 1931년 당시의 신문잡지에서 1990년대의 회고까지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다양한 중국어 사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접근법의 측면에서는 1931년 여름의 고정된 시점이 아닌 만주사변 이후 1930년대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야를 넓혀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사실 자체보다는 사상(史像)과 서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두고자 하였다.

---

20) 유창진・정해리, 「역사서사에서 문학서사로」, 『중국인문과학』 53, 중국인문학회, 2013, 380-390면.

21) 김창호, 「동아시아 타자형상 비교연구」, 『중국현대문학』 31,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4, 394-397면.

2. 중국언론의 만보산사건 규정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은 당시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중국언론들은 관련된 기사를 말 그대로 쏟아냈다. 대략 1931년 6월에서 8월에 이르는 기간 『申報』와 『大公報』는 각각 150편의 이상의 기사(평론포함)를 발표하였고, 『時事新報』·『時報』·『新聞報』 역시 하나같이 100건 정도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국민당 관영 『中央日報』의 경우 190편에 이르는 기사를 실었을 정도로 해당 사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뜨거웠다.[22] 그렇다면 이들 중국언론은 만보산사건을 어떻게 보도하였을까. 처음 7월 1일과 2일 만보산 일대에서 국지적 충돌이 발생한 직후에는, 중국농민-조선농민의 갈등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大公報』는 "금일 일찍 중국농민 500명과 조선농민 200명이 수전(水田)의 수갑(水閘)문제로 인하여 크게 충돌하였다"[23]라 하였고, 『華北日報』의 경우 "중국측이 비록 극력으로 한인의 수로 굴착과 제방 건설을 막으려 했지만, 한인은 일본인의 선동을 받아 호가호위하며 공사를 계속 강행하였다"[24]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보산사건은 중국인과 조선인의 대립이 아닌, 일본군경의 중국농민에 대한 공격이자 일제의 침략행위로 묘사되었다. 7월 5일 『大公報』는 "일본군경이 본월 2일에 중국농민과 경찰을 포위하고 총기를 사격하였다. 중국농민 10여명과 경찰 2명이 사망하였으니 해당 지역의 현재 형세가 이렇게 엄중하다"[25]고 일본측의 호전성과 중국측의 피해를 강조했으며, 현지 언론인 『東三省民報』는 「만보산사건은 완전히 일본인이 주도한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장춘의 일본경찰이 한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기를 이용하여 중국농민을 참살하였다"[26]는 소식을 전하였다. 아울러 요녕국

22) 이재령, 앞의 글, 2004, 385-386면.
23) 「萬寶山中朝農民發生衝突, 原因爲水閘問題」, 『大公報』(1931.07.03).
24) 「在東北日本官民, 如飮狂泉, 極力向我國挑戰」, 『華北日報』(1931.07.04).
25) 「東北日禍日加嚴重, 日人極力擴大萬寶山事件」, 『大公報』(1931.07.05).
26) 「萬寶山事件, 完全日人主使」, 『東三省民報』(1931.07.06).

민외교협회(遼寧國民外交協會)가 남경(南京) 외교부에 보낸 전문을 수록하였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이 한인을 사주하여 장춘 만보산의 농지를 패점(霸佔)하며 수로를 강제로 굴착하였다.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으나, 오히려 (일본은) 무장군경을 보내어 농민을 살해하고 점령을 시행하였다.”[27] 당시 일본영사관이 파견한 경찰이 발포하기는 했으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도살”이나 “참살”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노골적으로 등장하였고, 만보산사건의 직접적인 계기인 수로 굴착 또한 본래부터 일본의 사주로 행해졌던 것처럼 서술되었다.

나아가 만보산사건 자체를 일본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로 보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었으니, 『時事新報』 7월 6일 「만보산 한민의 수전경영 문제」는 사건의 기원을 무려 러일전쟁과 21개조 사건으로 소급시키는 동시에, 조선농민이 만보산 일대로 이주하여 벼농사를 시도한 일부터가 일본의 계획이었음을 역설하였다.[28] 여기에는 그럴듯한 해석도 따라붙었는데 「일본인의 야심이 매우 크다」는 7월 8일 『華北日報』 기사는 외무관료(南京外部某要人)를 출처로 일본이 소련을 견제하고자 만주에서의 충돌을 획책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보산사건을 일으켰다는 견해를 내놓았다.[29] 이처럼 만보산사건의 초점은 곧 현지 농민들의 갈등이 아닌 일본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로 옮겨갔는데, 일본이 수백 규모의 군경을 파견해 참호를 파고 지뢰를 매설하며 만보산 일대를 강점했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30] 북평(北平, 오늘날의 北京)의 국민당 또한 같은 시기 “만보산의 일본경찰이 한교(韓僑)를 사주하여 불법적으로 도랑을 파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파괴했으며 현지 동포를 도살하였다”[31]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니, 이는 ‘일본의 침략계획과 중국인 도살’을 정부가 공인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만보산사건이 터지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수의 중국언론은 물론 일부의 정부

27) 앞의 글.
28) 「萬寶山韓民水田經營問題」, 『日本研究 : 萬寶山專號』, 12-13面.
29) 「日人野心極大」, 『華北日報』 (1931.07.08).
30) 「萬寶山日軍極力挑戰」, 『華北日報』 (1931.07.08).
31) 「日警指揮韓人擅砍伊通河岸柳樹」, 『北平晨報』 (1931.07.08).

인사까지, 해당 사건을 중국농민-조선농민의 갈등이 아닌 중국농민-일본군경의 충돌, 심지어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의 중국에 대한 침략으로 확대해석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본래 만보산사건의 주요 당사자였던 조선인들의 존재감은 흐릿해졌고, 사안의 주체라기보다 일본에 조종(이용)당한 피동적 대상 정도로 여겨진 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만보산사건보다 더욱 과격하고 실질적 인명피해를 가져온 조선의 배화사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을까. 난리 직후 『東北商工日報』는 조선의 격렬한 배화풍조로 화교들이 위험에 빠졌음을 긴급히 알렸는데, 사건의 원인을 "조선인의 배화폭행은 일본측의 선전에 따른 것으로, 그 원인은 만보산 문제의 자극을 받은 바이다"[32]라 설명하였다. 폭력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는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을 하나로 엮어, 일본의 음험함과 침략성을 부각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으니 일례로 7월 8일의 『華北日報』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외교계의 언급에 따르면 이번 만보산사건은 완전히 일본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으로, 이러한 풍조를 이용하여 동북지역에 군대를 증파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한민의 폭동에 대하여 제재할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부추겼다.[33]

마찬가지로 7월 9일 『東三省民報』는 「만보산사건」이라는 기사를 통해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 모두 배후에 일본이 존재하였음을 역설하였다. "일본경찰이 폭력으로 중국인을 압박하고 조선인의 수로 공사를 엄호했으며, 동시에 총을 쏘며 시위를 벌이고 중국인을 체포하였다 (…) 일본인들이 각종 유언비어를 지어내 조선 경내에 배화를 선동하였다"[34]는 것이다. 『北平晨報』의 경우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은 일본의 계획적 침략정책의 일환이며, 만몽(滿蒙)을 장악하고자 일본이 장기간에 걸친 식민화 작업을 시행했다 단정하기까지

32) 「朝鮮排華風潮益烈, 僑胞已陷危境」, 『東北商工日報』 (1931.07.03).
33) 「朝鮮暴徒橫行未已, 華僑損害不可數計」, 『華北日報』 (1931.07.08).
34) 「萬寶山事件」, 『東三省民報』 (1931.07.09).

하였다.

> 조선의 배화풍조가 돌연 발발한 이래, 우리들은 처음부터 (이를) 일본의 전통적 대화침략정책의 표현이자, 우매한 조선인을 특별히 도구로 삼은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번 사변은 완전히 일본의 예정된 계획으로 일본은 만몽을 제2의 조선으로 삼고자 한다. (…)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 만몽침략의 요점은 조선인을 도구로 삼는 것인데, 조선인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일본인을 조선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 이렇게 일본이 만몽을 침략하는 근본정책이 또한 이번 사변이 발생한 전적인 원인이다.35)

위의 『北平晨報』 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앙의 성명서 일부를 인용하며, 조선인 전체가 일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배화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실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중국인과 조선인의 충돌이 아닌 일본의 계획적 침략으로 보는 시각이 퍼지자, 한국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정을 표하며 반제국주의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례로 『申報』는 9일에서 11일까지 「만보산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충고하며 또한 중국인에게 권한다」는 논평을 통해,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각종 비법행동(非法行動)은 모두 일본인이 계획한 것이며, 심지어 일본인들이 폭력과 위협으로 한국인들을 조종했다고 비난하였다.36) 반면 한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피압박민족으로 순망치한의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한인 지사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제법 우호적인 결론을 내렸다.37) 중국당국의 공식적 입장에 가까운 국민당 기관지 『中央日報』역시 「조선민족에게 고한다」라는 글에서 일제의 압박으로 고통받는 조선 민족에게 동정의 뜻을 표하는 한편, 중국은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지하며, 그렇기에 한인의 착오는 양해하되 부디 독립 자유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남겼다.38)

---

35) 「朝鮮排華惡潮之分析」, 『日本研究：萬寶山專號』, 35-36面.
36) 陳彬龢. 「爲萬寶山案忠告日人韓人幷勗國人」, 『日本研究：萬寶山專號』, 4-11面.
37) 위의 글.
38) 「告朝鮮民族」, 『日本研究：萬寶山專號』, 11-12面.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태도에 회답이라도 하듯 임빈(林彬)이라는 한인의 글이 『時事新報』에 실렸는데, 일제의 대륙침략 의도를 규탄하는 동시에 중한 민족이 골육동종(骨肉同種)이자 순망치한의 관계이므로, 만보산사건을 틈타 무장행동을 하는 일제에 손잡고 맞서야 함을 역설하였다.[39] 이 외에도 『東三省民報』가 배화사건은 음모자(일제)가 만보산사건을 이용하여 불량배들을 충동질해 일으킨 것으로, 조선인 전체의 의사가 아니며 중한민족의 관계 훼손을 경계해야 한다는 남경한교(南京韓僑)의 말을 전달하는 등,[40]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일본의 침략음모와 동일시하며 일본에 대한 비난이 커짐에 따라, 한국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이 확대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만보산사건-배화사건 당시 두 민족의 갈등이나 상호 부정적 편견이 엄연히 존재했기에, 신문에 등장한 한중연대론은 현실과 다소 괴리된 원칙적인 주장표명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조선인을 일제침략의 앞잡이이자 동북지역의 근심거리로 보고, 중국농민-조선농민의 갈등을 지적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존재하였다. 하지만 아래의 글이 보여주듯 그 경우에도 침략의 주체이자 원인은 어디까지 일본이었다.

> 일본은 동삼성(東三省)에 대하여 한민을 이식하여 침략의 선봉으로 삼았다. 한민으로 (동북에) 온 자는 해마다 십수만 명에 이르렀으니 동북의 감추어진 우환이라 할 수 있다. (…) 일본영사는 또한 무장경찰을 파견하여 한민의 공사를 보호하러 나섰고, (중국) 농민은 날로 격분하여 마침내 스스로 도랑을 메우고 한민을 쫓아내려 하였다.[41]

저명한 지식인이자 교육자 蔡元培 역시 7월 20일 「한국에서의 사건발생 이후의 대일문제」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일본인이 주도하였다", "일본경찰이 실탄사격을 하였다", "사전에 일본신문의 선동이 있었다"와 같이 배후에 일본이 있었음을 거듭 지적

39) 韓族 林彬, 「日本之毒計」, 『日本研究 : 萬寶山專號』, 23-24面.
40) 「排華運動非韓人全體意思」, 『東三省民報』 (1931.07.14).
41) 「萬寶山案之始末」, 『東北商工日報』 (1931.07.17).

하였고, 두 사건 모두 만몽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일관된 계획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다.[42] 일본어 신문이 거짓 정보를 유포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화교에 대한 공격을 방조하고 오히려 폭동을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을 저지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본이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고 재차 한국인을 동북에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대해감을 경고한 것이다.[43] 유사하게 경제학자 衛挺生도 "만보산과 조선 지방에서 일본인의 폭동은 일본조야상하(日本朝野上下)의 계획적인 침략의 첫걸음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44]라 논평하면서, 폭동의 주체를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위아래 모두가 결탁한 계획적 음모의 일환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한마디로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조차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일제의 의도적 중국침략이었음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당시 발간된 다수의 잡지도 일본의 침략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를 규탄했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일례로 馮勵青은 『人生半月刊』에서 "이는 당연히 중국과 조선의 충돌이 아니며, 중국과 일본의 문제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은 심지어 부녀와 아이들도 모두 안다. 수십 년간 일본은 그들의 일관된 대륙정책에 따라 우리 중국을 침략해 왔다"[45]라며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하였고, 鏡吾의 경우 『互助週刊』을 통해 일본이 사건을 고의로 일으켰음을 전제로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였다.[46]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조선을 이간하고 조선인들의 독립정신을 약화시키기 위해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세계적 경제위기와 소련의 성장에 따른 일본의 위기감이 그 배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裘烈 또한 『宣傳週報』에 기고한 글에서 만보산사건의 주범은 어디까지나 일본이고, 중국은 여전히 차식민지(次植民地)의 처지에 있으며, 제국주의 앞잡이인 한간(漢奸, 매국노)을 단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47] 아울러 "우리 동포들은 마땅히 적이 조선

42) 蔡元培, 「韓案發生後之對日問題」, 『日本研究 : 萬寶山專號』, 1-4面.
43) 위의 글.
44) 衛挺生, 「滿韓日人暴動之中國外交」, 『日本研究 : 萬寶山專號』, 21-23面.
45) 馮勵青, 「由萬寶山事件講到東北問題」, 『人生半月刊』, 1-4面.
46) 鏡吾, 「論萬寶山案」, 『互助週刊』, 9-13面.

이 아니라 일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함을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48] 호소하였다. 만보산사건의 직접적 계기가 조선인들의 수로 공사였고, 조선 각지에서 화교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부정하지 못할 사실마저 일제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 속에서 밀려났던 셈이다.

심지어 만보산사건이 처음 발발한 7월에서 만주사변 이후인 10월까지, 일본의 침략 의도에 대한 확신이 점차 견고해지고 그러한 믿음을 재확인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를테면 彭爾康의 경우 7월 『國民週刊』에 실린 기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자가 중국에 대하여 행한 전통적 침략정책의 일종으로 계획과 조직을 갖춘 일관된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49], "계획과 조직이 있는 일관된 침략이다"[50], "일본 제국주의자가 실시한 일관된 침략정책의 표현이다"[51], "이번에 만보산과 조선 각지에서 비극이 이어졌음은 일본 제국주의의 예정된 계획이었다"[52]등의 표현을 반복하였다. 마찬가지로 翁仲은 1931년 9월 20일 『中國雜誌』를 통해 만보산사건의 발생은 우연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의 만몽 침략정책의 일환이며, 조선인들의 무리한 개간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분규가 아닌 일본정부의 간접식민정책 음모임을 역설하였고,[53] 동시에 만보산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인이 한국인의 폭동을 사주하였으니, 사건의 책임도 당연히 완전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있다 단정지었다.[54] 나아가 만주사변 직후인 10월 『新民旬刊』에 발표된 心遠의 글은 '만보산사건(萬寶山案) -〉 배화사건(朝鮮慘案) -〉 나카무라사건(中村事件) -〉 만주사변(東三省被佔事件)'으로 이어지는 서사구조를 보여줌은 물론,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에 대하여 각각 "쌍방(중국과 조선농민)이 다투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자가 무기의 위력을 이용하여 중국 농민들을 핍박하였다. (…) 사건의 책임은 당연히 응당

47) 裘烈, 「對萬寶山案的感想」, 『宣傳週報』, 3-4面.
48) 위의 글.
49) 彭爾康, 「萬寶山事件及朝鮮慘案」, 『國民週刊』, 3面.
50) 彭爾康, 「萬寶山事件及朝鮮慘案」, 『國民週刊』, 8面.
51) 彭爾康, 「萬寶山事件及朝鮮慘案」, 『國民週刊』, 9面.
52) 彭爾康, 「萬寶山事件及朝鮮慘案」, 『國民週刊』, 10面.
53) 翁仲, 「萬寶山事件之經過及其前途」, 『中國雜誌』, 43面.
54) 翁仲, 「萬寶山事件之經過及其前途」, 『中國雜誌』, 49-53面.

일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55]와 "일본인이 그 식민지 인민과 일부 일본낭인의 충동과 무료한 의식을 이용하여 이러한 참혹무도한 유혈사태를 조성하였다"[56]는 서술을 남겼다. 즉, 이후 중국인들의 주류적 인식으로 자리잡게 되는 일제침략서사가 초기부터 비교적 명확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 만보산사건에서 동북의 강점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외형상 비록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정책은 일관적이었고 사건의 배경도 동일한 원류에서 나온 것이었다. 동삼성(東三省)의 점령은 실로 그 최후의 기도이며, 그렇기에 만보산사건, 배화사건, 청도도발(青島擾亂), 나카무라사건은 모두 선행단계에 지나지 않는다.[57]

이상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발발했던 1931년 7월을 중심으로 중국언론이 만보산사건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만보산사건-배화사건 모두를 '일제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중국침략 음모의 실현'으로 여기는 시각이 주류에 가까웠으리라 생각된다. 비록 모든 기사와 평론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대립의 구도를 개인이나 소집단 차원의 중국인-조선인도, 심지어 중국인-일본인도 아닌, 중국-일본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전면적 대결로 파악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아는 배화사건이 점차 가라앉고 중국에서 항의운동이 일어나면서, 배후에 일본의 조종이 있었다는 일본음모설이 일치된 공론이 되어갔다는 평가를 하였는데 상당히 타당한 지적으로 보인다.[58] 반면 조선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동이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음에도, 약간의 동정이나 원칙적인 연대론 정도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서술을 찾기 어려웠다. 한국인들이 화교에게 직접 위해를 가했던 배화사건을 다루면서도, 일본인에게 이용당한 조선인들의 어리석음 정도를 개탄했지, 주적이 일본이라는 인식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한인들은 일제의 도구에 불과하기에 비난할 가치조차

55) 心遠, 「從萬寶山案到日軍强佔東省」, 『新民旬刊』, 32面.
56) 心遠, 「從萬寶山案到日軍强佔東省」, 『新民旬刊』, 33面.
57) 心遠, 「從萬寶山案到日軍强佔東省」, 『新民旬刊』, 38面.
58) 강진아, 앞의 글, 2013, 120면.

없다는, 적대가 아닌 멸시가 적잖은 중국인들의 본심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관련 연구는 만보산사건을 겪으며 표면상 항일 공동투쟁에 대한 호소가 등장했으나, 한편으로는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부정적 인식(폭도, 망국노, 불청객, 우환, 침략의 앞잡이, 유랑민)도 확대되었다 지적하였는데,[59] 적대적이지는 않았으나 동정과 경멸이 뒤섞이고, 연대의 대상이면서도 동등한 상대로는 여기지 않았던 복잡한 시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일제음모설의 일부 내용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실과 제법 거리가 존재하는 과장이나 선동에 가까웠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을 동북에 식민하고 있으며, 만주이민과 수전개간 자체가 침략계획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많은 조선인이 동북으로 이주하며 중일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것은 맞지만, 만주사변 이전 그들이 만주행을 택했던 일차적 이유는 생계 곤란이었고, 그중에서는 반일정서를 지녔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일례로 1933년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外務省亞細亞局)의 조사는 조선인의 만주행 원인을 과잉인구와 흉작 및 토지가격의 상승과 같은 조선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만주의 삶이 조선보다 낫다는 소문과 실제 그러한 경향,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불만, 조선인에 대한 중국 관민의 동정심 등을 들었다.[60] 이는 일제강점기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조선족들이 남긴 다수의 회고를 통해서도 검증 가능한데, 이를테면 1923년생 배종덕의 경우 경제적 궁핍과 일제 통치에 대한 거부로 고향을 떠났다 증언하였다.[61] 1927년생 김봉구 집안은 조선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일찍이 증조부대 만주로 옮겨왔으며,[62] 1930년생 박진권은 조부가 1915년 전후 생활곤란으로 만주에 왔다는 기억을 남겼다.[63] 동년배 최영한 또한 부모세대가 1918년 동북으로 이주했음을 밝히면서 “한일합병후 일제의 압박이 심하였고 또 생활도 어렵기에 만주로 오면 잘살 수 있다 하여 왔습니다”[64]고 언급하

59) 이준식, 앞의 글, 2012, 250-258면.
60) 윤휘탁, 「침략과 저항의 사이에서」, 『한국사학보』 19, 고려사학회, 2005, 309-310면.
61) 중국조선족청년학회, 『중국조선족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1992, 187-188면.
62)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이주사12권)』 연변인민출판사, 2015, 768면.
63) 김춘선 주필, 위의 책, 2015, 797면.

였다. 실제 일본당국이 조선인의 집단이민을 유도한 것은 대체로 괴뢰 만주국 시기의 일이었기에,[65] 1931년 시점 만보산을 포함한 동북지역의 조선인들이 일제의 첨병인 것처럼 단정함은 타당하지 않다.

배화사건 역시 오늘날 그를 일본의 음모선동의 결과라 단순하게 파악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오히려 조선인 도시하층민이 화교 노동자를 공격했던 폭동의 기저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존재했다는 지적이나,[66] 한중노동자의 모순과 더불어 부유한 화교(자산계급 화교)에 대한 빈곤한 혹은 사회주의 성향 청년들의 적개심이 폭력을 키웠다는 주장,[67]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노동환경 악화의 결과 사회적 위기가 반중폭동으로 분출되었다는 등,[68] 일제 비판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석이 행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만보산사건 이후 중일 외교당국(중앙과 지방 모두) 사이에 전개되었던 외교교섭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일본 외교당국에게 평화적 해결의 의도가 있었으며 외무성의 기본방침도 충돌의 확대가 아닌 악화의 방지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69] 그럼에도 정작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겪은 중국인들이 조야상하를 막론하고 그를 '일본의 계획적 침략음모'로 간주하였음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3. 사건의 맥락과 일제침략서사

만보산사건 이후의 불안정한 정세는 끝내 9월 18일의 만주사변으로 파국을 맞이하였다. 일제는 신속하게 동북지역을 장악하며 괴뢰 만주국을 세웠으니, 이는 본격적인 중국(대륙)침략의 시작이었다.[70] 국민정부는 일단 군사적

64) 김춘선 주필, 위의 책, 2015, 825면.
65) 만주국 시기 한인의 강제적 이주와 일제의 집단부락 통제에 대해서는 유필규, 「만주국시기 한인의 강제이주와 집단부락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66) 정병욱, 앞의 글, 2014.
67) 강진아, 앞의 글, 2013.
68) 한상협, 앞의 글, 2024.
69) 손승회, 앞의 글, 2007b.
70) 박영준, 『제국일본의 전쟁, 1868-1945』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226-264면.

대응에 신중하며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제사회의 여론마저 무시한 일본의 난폭한 태도 앞에서 해결책을 찾기란 난망하였다. 이제 중일관계는 1931년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졌고, 동북지역의 한중일 민족 사이의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930년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이전까지의 중국인들은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해당 시기는 중국에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며 민족주의 정서가 끓어오르는 한편, 국민당 정권의 국가건설 작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때이며, 일본의 경우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무너지고 군국주의 혹은 천황제 파시즘으로의 경도가 이루어진 시점, 세계사적으로도 전간기의 위태로운 평화가 무너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욱 큰 참극이 다가오던 결정적 단계였다. 이번 장에서는 1930년대 초반 발간된 동북지역과 중일관계를 다룬 서적, 그리고 동시기 민족주의 책자를 중심으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식-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何西亞의 『東北視察記(1932)』는 전제14장 가운데, 제3장 「일본제국주의의 동북침략 개관」, 제4장 「일본의 적극적인 동북식민」, 제5장 「한인의 팽창과 국적문제」, 제6장 「만보산사건의 위험성」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만보산사건을 다루었다. 특히 제6장의 경우 원문의 제목부터 "萬寶山案好險好險"으로 25쪽에 걸쳐 만보산사건의 경과, 현지(馬家哨口) 방문기, 배화사건 관계자의 증언을 수록하였다.[71] 책의 저자는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朝鮮慘案)을 공통으로 일본인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만보산사건을 "일본경찰은 난폭했고 조선농민은 어리석었으며, 중국농민은 격분했으나 중국경찰은 곤란해하였다"[72]고 정리하였다. 충돌원인에 대해서도 한인들의 사정을 소개하기는 했으나, 핵심요소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강경한 동북정책이라 단정하고 있다.[73] 그렇기에 일본인이 없었다면 애당초 만보산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발생했더라도 일찍 해결되었으리라 확신하는 한편,[74] "일본인

71) 何西亞, 『東北視察記』 現代書局, 1932, 81-106面.
72) 何西亞, 『東北視察記』, 81面.
73) 何西亞, 『東北視察記』, 82-85面.
74) 何西亞, 『東北視察記』, 85面.

의 만보산사건에 대한 각종 도발은 그것이 계획적인 공격을 위한 것이었다 단언할 수 있다"[75]는 결론을 내렸다. 요컨대 1931년 언론에서 반복되었던 일본음모설을 주장하되, 일본의 동북지역 침략(식민화)계획과 한인의 팽창이라는 맥락의 연장선에 만보산사건을 위치시킨 것이다.

다음으로 許宅仁의 『中日的舊恨與新仇(1932)』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한(舊恨)은 근대일본의 정한론(征韓論)에서 만보산사건에 이르기까지를, 신구(新仇)는 만주사변 이후의 침략을 가리킨다. 해당 서적은 특히 동북지역에 대한 위협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물론 대표적 침탈기구로 규정한 만철(滿鐵)과 관동청(關東廳)의 실체, 아울러 일제의 교통·경제·문화·군사적 침략정책 전반을 다루었다. 만보산사건은 제15장 「萬寶山事件與中村的失踪」에서 일본군 장교 나카무라가 첩보공작을 하다 피살당한 사건과 함께 언급되었는데,[76] 앞의 제13장에서는 21개조 문제를, 제14장에서는 제남사건(濟南慘案)을 각각 서술하였다. 만보산사건을 우발적이거나 지엽적인 사고가 아닌, 치밀하고 장기적인 동북지역 침략구상의 일환이자, 21개조 요구와 제남사건으로 대표되는 주권침탈의 연장으로 이해한 셈이다. 그렇기에 許는 조선인의 만주이민 자체를 "이러한 식민정책은 일본인을 직접 중국에 이주시켜 직접적으로 식민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일본-조선-만주를 점차 식민화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니, 일본인을 조선에 식민하고 조선인을 쫓아내 만주에 식민하게 함이 그 식민정책의 시행이다"[77]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는데, 1920년대 일제는 한인의 보호를 명분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장악한 다음 그를 대륙침략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거나, 일본의 빈농들을 조선으로 보내고 다시 조선 농민들을 만주로 배출하는 소위 '환위이민(換位移民)'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78] 하지만 1910년대와

75) 何西亞, 『東北視察記』, 90面.
76) 許宅仁, 『中日的舊恨與新仇』, 中華書局, 1932, 89-93面. 나카무라 피살사건이 이른바 '中村事件'이다.
77) 許宅仁, 『中日的舊恨與新仇』, 90面.
78) 유필규, 앞의 글, 2014, 20-21면. 아울러 만주지역에 일본영사관의 통제를 받는 친일적 조선인 자치조직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가 적잖은 한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도 중국인들의 의심을 강화하였을 것이다. 같은 글의 23-24면.

1920년대 일본인들의 관찰 기록에 따르면 중국인 지주들은 순종적인 조선인 소작농을 환영하는 편이었고, 중국인 전반이 특별히 한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한다.[79] 따라서 조선인 전체를 일제의 앞잡이로 간주하는 부정적 인식은 본래부터 있었다기보다, 일제와의 갈등 속에서 빠르게 퍼져 1930년대 초에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은 林伯修와 鄧初民이 공동으로 펴낸 730쪽에 이르는 방대한 『日本與中國(1933)』이다. 이는 표면상 중일관계를 다룬 서적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분량을 일제의 중국침략 고발에 할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동북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만보산사건은 제2장 「일본제국주의의 중국침략사 요약(日本帝國主義侵略中國史綱)」의 제7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는데 해당 장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청일전쟁 -〉 러일전쟁 -〉 21개조 -〉 산동문제 -〉 5.30사건 -〉 제남사건 -〉 만보산사건(배화사건 포함) -〉 만주사변. 이러한 사건 배치의 의미는 분명하다.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은 청일전쟁에서 만주사변에 이르는 일제침략사의 불가결한 부분이자 중요 단계라는 것이다. 엄격히 평가하자면 만보산사건은 결코 청일전쟁이나 산동문제(이것이 5.4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혹은 만주사변과 동급의 사안이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만보산사건에 하나의 절을 할애했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연히 보여준다.[80] 앞의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日本與中國』 또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중국침략이라는 흐름 속에 위치시켰던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서적은 만보산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수로 굴착의 주체를 일본으로 명시했으며, 7월 2일의 충돌과 이후의 전개도 철저하게 중국농민-일본경찰의 대립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사건발생 직후 일본측이 150명 가량의 군경을 파견했음을 강조했으니, 군용차량과 기관총에 지뢰까지 동원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중국인들의 집까지 강탈하였음을 규탄하였던

79) 윤휘탁, 앞의 글, 2005, 311-313면.
80) 林伯修・鄧初民, 『日本與中國』(崑崙書店, 1933), 42-46面.

것이다.[81] 아울러 조선인들에 대해서도 10인을 하나의 조로 묶고, 연대책임을 물어 가혹한 폭력을 가하였다 비난하고 있다. 일제침략의 앞잡이라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그들의 피해자라는 동정적인 시선이 나타났던 셈이다. 배화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 참혹한 사건(慘案)이 발생한 이후 일본 제국주의자가 조선인을 지휘하여 중국인의 상점을 약탈하고 중국인의 가옥에 불을 질렀다. (…) 이번 폭동은 평양이 가장 심했는데 3일에 곧바로 전화가 끊겼고, 5일 늦은 시간 거대한 폭동이 발생하여 6일 오후 6시에는 폭도 천여 명이 중국인들의 상점을 습격하였다. (…) 당시 조선화교들은 열차를 이용하여 귀국하려 했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차내가 혼잡하다는 구실로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으며 역에서는 화교에게 표를 팔지도 않았다.[82]

마찬가지로 배화사건의 주체를 일본제국주의자로 명시하였으며, 조선인들은 다만 그들의 하수인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화교의 대피를 막았다는 식으로 일본인들의 악랄함과 의도성을 부각하였다(열차 거부가 사실이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한편 일본의 군사적 침공과 영토상실이 실체화됨에 따라, 민족주의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민중 교육(선전)용 소책자가 다수 발간되었는데, 대체로 정부(국민당)가 펴낸 이들 서적은 더욱 명확하게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일제의 중국침략이라는 거시적 서사 속에 위치시켰다. 예를 들어 1931년 국민당 지방 당부가 지은 75쪽의 『日本侵略中國實錄』는 23장에 걸쳐 일본의 중국침략 사례를 나열하였는데,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이 20-21장을 만주사변(瀋陽慘案)이 마지막 23장을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83] 류큐 및 대만침략에서 시작하여 청일전쟁과 조선병탄을 거쳐, 산동의 점령과 21개조 및 각종 경제적 침탈, 나아가 일본이 일으켰던 각종 유혈사태(長沙慘案・漢口慘案・五三十慘案・濟南慘案)로 이어지는, 침략의 연장이자 만주사변의 직전 단계로 만보산사건-

81) 林伯修・鄧初民, 『日本與中國』, 43-44面.
82) 林伯修・鄧初民, 『日本與中國』, 44-46面.
83) 中國國民黨河南省黨務指導委員會, 『日本侵略中國實錄』 1931.

배화사건을 소개한 것이다. 민중교육총서(民衆教育叢書)라는 부제를 달았던 1932년의 『反日警鐸』은 부록을 제외하고 전체 8장 구성인데 목차는 아래와 같다.84)

> 제1장. 일본의 대만침략 및 류큐병탄 경과. 제2장. 일패도지의 중일전쟁(청일전쟁).
> 제3장.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21개조. 제4장. 인간의 도리라고는 없는 5.30참안.
> 제5장. 통일을 방해하려는 5.3참안(제남사건). 제6장. 만보산사건.
> 제7장. 일본의 동삼성 강점. 제8장. 강권하의 잃어버린 세계의 정의.

아울러 만보산사건에 대해서는 "첫째, 만보산사건은 일본제국주의자가 약소민족의 연합전선을 파괴하려 한 계략이다. (…) 중한합작을 두려워하여 계책을 짜냈으니, 조선인들을 우롱하고 중한민족 사이의 감정을 해쳐 서로 적대하게 만들어, 그 침략정책을 발전시키려 했던 것이다. 둘째, 만보산사건은 일본제국주의자가 중국을 침략한 일종의 조직과 계획을 갖춘 행동이다. (…) 만보산사건은 일본제국주의자의 대화적극정책(對華積極政策)의 표현이다"85)라 서술하였으니, 역시 만보산사건은 대만출병에서 만주사변까지 일관된 일제침략서사의 한자리를 차지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침략음모이자 민족 이간책으로 여겨졌다.


目次
弁言
插圖
第一章 日本侵略我琉球台灣、
第二章 日本進寇我朝鮮
第三章 中日戰爭
第四章 日本和各國聯軍陷我北京
第五章 日俄在華之戰爭
第六章 日本吞滅朝鮮
第七章 日本侵略南滿
第八章 日本强佔我青島
第九章 日本迫我二十一條
第十章 日本之經濟侵略
第十一章 中日軍事協定
目錄
第十二章 日本佔我瑠春
第十三章 日本在巴黎和會之陰謀
第十四章 鄭家屯之慘案
第十五章 長沙六一慘案
第十六章 漢口慘殺案
第十七章 五卅慘案
第十八章 大沽口事件
第十九章 濟南慘案
第二十章 萬寶山慘案
第二十一章 朝鮮排華慘案
第二十二章 中村事件
第二十三章 蕭陽慘案
附錄
五十年來日本侵略中國的總賬
中國無線電台一覽表
日本在瀰洲之事業會社一覽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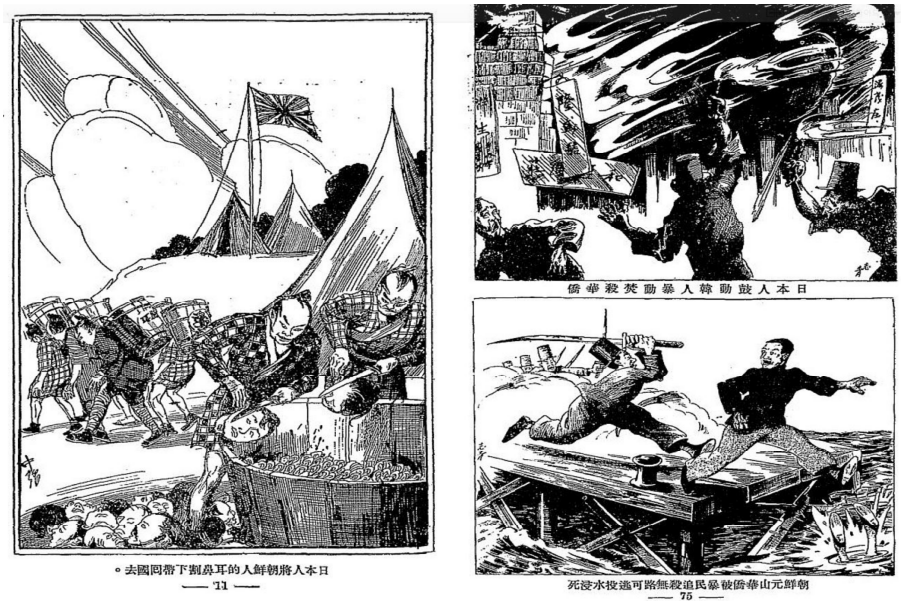
〈그림 1〉 대만출병에서 만주사변까지 일제침략의 서사와 만보산사건(日本侵略中國實錄)

84) 韓貴青 編, 『反日警鐸』 河南省立民衆教育館編輯部, 1932.
85) 韓貴青 編, 『反日警鐸』, 45面.

정확한 출간일은 불명이나 내용상 1932년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中國國恥史研究概要』의 경우 영국・프랑스・러시아와 같은 서구열강의 중국침탈 사례와 더불어, 일본의 공격적인 중국침략정책을 하나의 장으로 할애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濟南慘案->萬寶山慘案->東北事變->淞滬戰爭->熱河淪亡 순으로 사건을 배열하였다.[86] 덧붙여 만보산사건은 만주사변의 복선이고 배화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온전하게 일본의 예정된 계획임을 역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87]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측에서 편집한 유사 서적인『帝國主義侵略中國史略』는 흥미롭게도 제국주의의 중국침략을 크게 '제국주의의 침략 초기단계->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중국침략 단계->일본제국주의의 독단적인 침략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였다.[88] 요컨대 아편전쟁 이래 제국주의의 중국침략이 점차 거세졌고, 그 최종단계이자 제일가는 적대세력이 바로 일제라는 주장이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만보산사건은 일제침략의 증거로 언급되었고, 특히 배화사건에 대하여 "조선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제국주의자가 조선인을 지휘하여 중국인들의 상점을 약탈하고 중국인들의 가옥을 불태웠다. (…) 중국인이기만 하면 남녀노소를 묻지 않고 멋대로 때려 죽였다"[89]는 식으로 잔혹성을 부각하려 하였다. 심지어 일본의 역대 중국침략을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림으로 묘사한 1933년의『日本侵略中國史畫』은 일본의 적대행위를 임진왜란(日本豐臣秀吉滅朝鮮侵中國)까지 소급하고 있다.[90] 즉,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으나 승리하지 못하여 일본과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일본이 중국을 멸시하며 부단하게 중국을 공격하였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별개로 일본이 살해한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자르는 자극적인 삽화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로 해당 화집은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 대해서도 일본의 사주를 받은 조선인들의 화교를 살해하는 장면을 약간은 과장된 필치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86) 陳冷生 外,『中國國恥史研究概要』福建省保安處幹部訓練所, 1932(推定).
87) 陳冷生 外,『中國國恥史研究概要』, 87-88面.
88) 國民革命軍第四集團軍總司令部政治訓練處,『帝國主義侵略中國史略』, 1932(推定).
89) 國民革命軍第四集團軍總司令部政治訓練處,『帝國主義侵略中國史略』, 59-60面.
90) 梁又銘 編,『日本侵略中國史畫(上)』通俗畫集編輯社, 1933.



〈그림 2〉 삽화의 형태로 묘사된 임진왜란과 만보산사건(日本侵略中國史畫)

정리하자면 만주사변 이후 1930년대 출간되었던 다수의 서적에 나타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의 인식은 일본의 음모와 계획적 침략을 강조하는 것으로 1931년 7월 당시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아가 대만출병 이래 일본 제국주의의 연이은 중국침략과 동북의 식민지화라는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서술하려는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 같은 일제침략의 서사는 때로는 아편전쟁에서 시작된 제국주의의 침탈과 중화민족의 굴욕이라는 한층 거시적인 관점, 혹은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중일 적대관계라는 과장된 구도와 결합하며,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보산사건의 우발적 성격이나, 중요한 주체였던 조선인들의 존재, 배화사건 기층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으며, 한인들은 대체로 일제침략의 도구나 피해자라는 피동적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만보산사건-배화사건 전반을 일제의 계획적 음모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진 만주사변이라는 노골적인 침략행위는, 직전에 있었던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본격적인 만주강점의 준비단계였다 확신하게 만들기 충분하였을 것이다. 심지어 중국 외교당국

조차 리턴조사단에게 조선인들이 일제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선인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만주이주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달했을 정도로,[91] 당시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일본의 침략음모이고, 일제의 중국침략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일부분임을 일종의 사실이자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4. 기억과 일제침략서사의 강화

마지막 장에서는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서 반세기가 흐른 오늘날의 시점에서, 해당 사건이 어떻게 기억 및 기록되고 있는지 회고자료와 역사서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가 분석할 회고가 기록된 시점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이므로, 2020년대 현재와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1990년도 만보산사건이 발발한 지 60년이 흐른 시점이고, 1990년대 중국인의 평균수명이 70세가 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직접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증언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이나 '오늘날'과 같은 표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임을 당부하고 싶다.

먼저 『長春黨史資料(第2輯)』에 실린 「萬寶山事件」은 尹成錄・李貴友・柏國信의 3인이 기록하였는데, 중국-일본의 갈등을 중심으로 회고하는 한편 일제의 침략적 음모를 일관되게 부각하고 있다. 조선농민들이 만보산 일대에서 벼농사를 지은 배후에 일본이 있었고, 사기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킨 중국인 郝永德은 일본의 고용인이었으며, 일본경찰이 공공연히 무력을 사용했던 만큼, 중국농민들의 자위적 행동(수로와 제방의 파괴)은 정당하였다는 것이다.

> 만보산사건은 고립되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음모를 꾸며 만들어낸 침화사건(侵華事件)이다. (…) 일본제국주의가 적극적으로 실행한 이른바 대륙정책의 결

91) 박영석 역, 앞의 글, 1986, 121면.

과이다.[92]

> 일본경찰이 105명의 조선농민을 이끌고 작업하던 곳에 돌아와 총을 걸어놓고 엄호하며 14일에는 도랑을 파고 제방을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 비록 우리측 농민들이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나 일본인들은 여전히 진행하였다. 이때 조선농민들은 이미 진상을 깨달았기에 도주하고 싶어하였으나, 항상 일본경찰에 의해 붙잡혀 학대당하였다(鞭责). (…) 6월 20일 수로를 굴착하였다. 일본경찰은 조선농민에게 7월 5일까지 제방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6월 26일 일본경찰 6인이 조선인 50명이 제방을 쌓는 것을 감독하였다.[93]

좁은 의미의 만보산사건인 7월 2일의 충돌에 대해서도 "민중은 일본경찰이 우리 영토에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에 공분하여 격렬한 언사로 항의하였다. 일본경찰은 무력으로 협박하였으니 공공연하게 총을 쏘며 위협하였다. 우리 민중이 도랑 밖으로 물러났음에도 일본경찰은 허공에 총을 쏘았다"[94]고 서술하였다. 또한 사건 직후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경찰이 60명 이상 증원되고, 전투용 참호를 파거나 일본국기를 거는 등, 중국영토에 대한 강점을 시도하였다 지적하고 있다. 배화사건에 대해서도 장춘 일본영사관이 의도적으로 날조한 소식을 조선 각지에 퍼트렸을 뿐 아니라, 폭동이 발생하자 불량한 일본인들이 조선인으로 위장하고 약탈행위를 했으며, 일본경찰은 배화시위 대신 그를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막았다 주장하였다.

> 그리하여 진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을 우롱하였다. 별개로 이를 이용하려는 폭도와 친일분자의 선동하에 조선에서는 충격적인 배화참안(排華慘案)이 발발하였다. 7월 3일부터 한성 평양 인천 등의 10여 도시에서 화교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부 일본낭인과 일본군경은 또한 옷을 갈아입고 그 가운데 숨어들어 살인과 약탈에 참가하였다.[95]

이렇게 일제의 만행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만주사변과

92) 尹成錄・李貴友・柏國信,「萬寶山事件」,『長春黨史資料(第2輯)』長春市地方史志編纂委員會, 1987, 69面.
93) 尹成錄・李貴友・柏國信,「萬寶山事件」, 75-76面.
94) 尹成錄・李貴友・柏國信,「萬寶山事件」, 77面.
95) 尹成錄・李貴友・柏國信,「萬寶山事件」, 79面.

중일전쟁으로, 그리고 중국인민이 끝내 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다음으로 王福山과 王貴山의 「萬寶山事件經過」는 1991년 각각 82세와 73세의 노인들이 청년 시절 겪은 만보산사건의 체험을 구술한 기록이다. 해당 회고는 조선인들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만보산사건의 발단을 한간(중국인 매국노)들이 일본인 및 한국인과 내통한 것에서 찾았고,[96] 중국 농민들이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인의 간섭에도 저항했다는 증언을 남기기도 하였다.[97] 심지어 만주사변 이후의 만보산 지역을 회상하며 "전부 한국인이 차지하였다(全被韓國人占了)", "한국인이 그의 토지를 강점했다(韓國人强占他的土地)"와 같은 표현까지 사용하였으니,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한중연대론과 달리, 실제 조선농민과 충돌하였던 이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사변 이후 동삼성(東三省)이 일본놈(日本鬼子)에게 점령당하였고, 다음 봄이 되자 한국인들이 날로 늘어났다. 남쪽으로는 마초구(馬哨口)에서 북쪽으로는 강가와보(姜家窩堡)와 관황(官荒) 그리고 삼성보(三姓堡) 일대의 하천가에는 1,800상(垧)의 토지가 있었는데 전부 한국인들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당시 한국인들의 수전개간을 주도하였던 이는 김용각(金龍角)이라 불렸는데, 그는 일본인의 세력에 의존하며 우리 중국농민의 토지를 강점하였다.[98]

이와 유사하게 楊昭全의 「萬寶山事件眞相」에서도 일본의 괴뢰 노릇을 하는 부정적 조선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간 郝永德과 계약을 체결했던 이승훈(李升薰)등 조선농민들이 일본인의 명령에 따라 밭을 논으로 바꾸었다고 서술하거나[99], 배화사건 과정에서 친일분자의 선동이 있었음을 지적한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100] 그렇지만 만보산사건을 "일본제국주의가 동북에 출병할 구

96) 王福山・王貴山 口述, 「萬寶山事件經過」, 『9.18事變資料匯編』, 吉林文史出版社, 1991, 192面.
97) 王福山・王貴山 口述, 「萬寶山事件經過」, 194面.
98) 王福山・王貴山 口述, 「萬寶山事件經過」, 195面.
99) 楊昭全, 「萬寶山事件眞相」, 『9.18事變資料匯編』, 196面.
100) 楊昭全, 「萬寶山事件眞相」, 205-206面.

실을 찾고 중국인과 조선인의 관계를 이간하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101] 사태로, 배화사건 역시 "일본제국주의가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 목적은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이간하고 중국 관민이 동북의 조선인들을 원망하게 하여, 만보산사건을 확대하고 한인보호를 구실로 출발하여 동북을 점령하려는 것이었다"[102]고 규정한 것에서 드러나듯, 주적은 어디까지나 분명히 일제였다. 더욱이 일본군경이 강요한 노역과 구타에 시달리는 조선인들의 모습도 함께 기록하였던 만큼,[103] 반한(反韓) 이라기보다는 중국인들이 가졌던 복합적 조선인관(친일 앞잡이, 연대의 동지, 가련한 피해자)이 표출된 것이라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1990년 「日本帝國主義操縱下的平壤排華事件」라는 회고를 남긴 崔殿芳은 조선화교 출신으로(朝鮮歸僑), 배화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최소한 가까운 사람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배화사건을 "배화(排華)는 일본제국주의가 계획하고 사주한, 일부 진상을 알지 못한 민중을 이용해, 화상(華商)과 화인(華人)을 상대로 각종 폭력을 가해 만들어낸 유혈사태이다"[104]고 규정했으며, 그 원인 역시 "일본 제국주의자는 이를 구실로 여론을 조성하고 사건을 확대하며 중국인 배척을 선동했다"[105]며 일제의 계획에서 찾았다. 덧붙여 일본경찰의 무성의한 대응이나 일본인들의 폭동선동을 증언하기도 하였다.[106] 요컨대 崔가 기억하는 배화사건 역시 철저하게 "일본제국주의의 조종을 받은 배화"[107]였던 셈이다.

이어 「排華慘案紀實」의 작자 蔣文鶴은 외교관 출신으로, 배화사건 당시 인천영사를 지냈기에 사태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배화사건을 이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

101) 楊昭全, 「萬寶山事件眞相」, 195-196面.
102) 楊昭全, 「萬寶山事件眞相」, 206面.
103) 楊昭全, 「萬寶山事件眞相」, 205面.
104) 崔殿芳(朝鮮歸僑), 「日本帝國主義操縱下的平壤排華事件」, 『9.18事變資料匯編』, 210面.
105) 崔殿芳(朝鮮歸僑), 「日本帝國主義操縱下的平壤排華事件」, 211面.
106) 崔殿芳(朝鮮歸僑), 「日本帝國主義操縱下的平壤排華事件」, 213-214面.
107) 崔殿芳(朝鮮歸僑), 「日本帝國主義操縱下的平壤排華事件」, 214面.

> 만보산사건 이후 조선에서 발생한 배화참안(排華慘案)은 절대 조선인이 화교에게 행한 돌발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이며 대규모로 일으킨 배화운동이며, 또한 일관된 침략정책의 표현이기도 하다.[108]

나아가 한층 구체적으로 배화사건이 일본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를 나열하였는데, 평시 집회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음에도 일본이 방관했다는 점, 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일본어 신문들이 호외까지 발간하며 배화감정을 조장했다는 점,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위장하고 폭동을 선동한 사례가 있다는 점, 평양과 원산에서 화교들에게 열차 및 윤선의 표를 팔지 않았던 점, 중국과 조선의 전보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 등이 그러하였다.[109] 개별 사실에 대한 진위와는 별개로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일본의 '음모'를 의심할 나름의 이유 정도는 충분히 존재했던 셈이다. 따라서 蔣文鶴은 일본이 중조민족의 친선을 파괴하고 식민통치를 유지하고자 배화사건을 선동하였으며, 화교를 박해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선인들을 이용(假手)했다 단언하였다.[110] 심지어 "일본경찰은 화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으나 실제는 폭도들이 살육을 일삼게 지휘하였다"[111]며 단순한 방조나 무능을 넘어 일본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는 식의 서술을 남겼다.

이처럼 만보산사건-배화사건에서 60년이 지난 1990년대까지,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주류적 입장은 '일제침략서사와 침략음모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찍이 사건 발생 직후(1931) 국민정부가 만보산사건을 '일본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침략정책'으로, 배화사건을 '일본의 충동과 강압을 받아 일어난, 일본의 조직과 계획에 의한 음모'로 각각 파악했음을 고려한다면,[112] 국가 차원의 공식적 인식이 국민당-공산당의 체제교체와 사회

108) 蔣文鶴, 「排華慘案紀實」, 『9.18事變資料匯編』, 216面.
109) 蔣文鶴, 「排華慘案紀實」, 216-217面.
110) 蔣文鶴, 「排華慘案紀實」, 218面.
111) 蔣文鶴, 「排華慘案紀實」, 225面.
112) 이재령, 앞의 글, 2004, 372-374면.

주의-개혁개방이라는 노선변화의 반세기를 넘어,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배화사건에서 일본의 명확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으로, 한 연구는 식민당국의 사전예방조치나 적극적 대응이 부족하였음은 분명하나 의도적 개입은 확언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113] 일본의 침략음모를 내심 확신하던 중화민국 정부와 국민당도,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일제의 선동과 학살을 직접 규탄하기보다는, 화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초점을 맞추었다.[114] 그럼에도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당사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일제의 계획과 침략음모를 '증언'하고 있다.

덧붙여 사건의 경험자나 일반인이 아닌 오늘날의 전문적 훈련을 받은 역사학자들의 서술에서도, 만보산사건-배화사건과 관련한 일제침략의 서사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중화민국사 전반을 다룬 대표적인 통사이자 현대중국의 공식적 역사서술을 상징하는 중화서국(中華書局)의 『中華民國史』 제7권은 만보산사건의 배경으로 동북장악을 위한 일제의 적극적 무력침략 정책을 거론하는 동시에,[115] "만보산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본은 곧 조선에서 왜곡보도를 행하며, 조선인이 중국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거짓소문을 퍼트리고, 조선인이 화교를 잔혹하게 살해하도록 선동"[116]한 결과로 배화사건을 평가하였다. 張憲文 주편 남경대학(南京大學)의 『中華民國史』 역시 만보산사건-배화폭동에 대하여 일제가 동북침략의 구실을 만들고 중조 양국인의 관계를 파괴하고자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117] 요컨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함은 물론 일본과 한국측의 자료도 비교적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는 현재 중국의 역사가들도,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만은 아래와 같이 반세기 이전에 형성된 일제침략의 서사와 일제의

113) 최병도, 앞의 글, 2012, 324면.
114)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박선영 역, 『중일문제의 진상』 동북아역사재단, 2009, 211면.
115) 曾業英 等, 『中華民國史(第7卷)』 中華書局, 2011, 516-519面.
116) 曾業英 等, 앞의 책, 2011, 518面.
117) 張憲文 等, 『中華民國史(第2卷)』 南京大學出版社, 2005, 250-251面.

계획적 음모론을 되풀이하고 있었다.[118]

> 일본 관동군은 우선 만보산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중국동북에 무력으로 진공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한 시도였다. (…) 일본 내의 여론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 점령하의 조선에서는 대규모의 배화사건이 발발하였으니, 일주일 사이에 다수의 중국인이 살해당하였고 수천의 중국인이 부상을 입었다. (…) 만보산사건으로 조선의 배화풍조가 확대될 시기, 중국동북에서는 또한 동북군이 일본의 간첩인 나카무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119]

> 동북역치(東北易幟)를 막으려는 공작이 실패한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음흉한 마음으로 소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만들려 하였다. 만보산사건은 일본제국주의가 고의로 일으킨 하나의 대규모 반화사건(反華事件)이다. (…) 만보산사건과 조선배화사건은 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사건으로, 중국동북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공들여 일으킨 정치사건이었다.[120]

즉,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근본적으로 일제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有組織, 有計劃) 중국침략이라는 인식, 그리고 이것이 그때까지의 도발은 물론 이후의 만주사변과 이어진다는 일제침략의 서사가 현대중국의 기억뿐 아니라 역사서술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만보산사건-만주사변-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제의 중국침략이란 너무나 분명하고도 참혹한 것이었기에, 강렬한 반일정서 속에서 만보산사건-배화사건 자체를 둘러싼 중국인-조선인의 복잡한 관계나 사건의 독자적 성격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고, 대신 청일전쟁 이래 '일제의 중국침략과 그에 맞선 중화민족의 투쟁'이라는 거시적 서사의 일부로 사건이 인식-규정-서술-기억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흥미롭게도 이는 광복과 더불어 만보산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

118) 아래에 인용한 두 서적은 薇信讀書에서 제공한 전자책(電子書)를 참고하였다. 전자책의 경우 일반적인 서적과 달리 정확한 쪽수의 확인이 어렵기에 대신 해당 구절이 담긴 장절을 표기하였다.
119) 楊奎松, 『中國近代史通史: 第8卷(電子書)』 江蘇人民出版社, 2009, 第5章 1節.
120) 唐曉輝, 『九一八事變(電子書)』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5, 第7章.

크게 달라졌던 한국의 경우와 상반된다. 만보산사건을 다룬 1930년대의 대표적 문학작품인 이태준의 「농군」과 안수길의 「벼」는, 공통적으로 조선인-중국인의 갈등을 서사의 중심에 두었고, 중국-일본의 대립은 생략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되었을 뿐이다.[121] 그러나 광복 이후에는 조선인-중국인의 충돌보다는 조선인-일본인의 대립구도가 한층 부각되었고, "만보산사건을 비롯하여 한중 양민족의 이간을 꾀하던 왜적의 모략에 빠져 가끔 불상사가 있었던 것"[122]이라거나, "중국인들이 1931년 만보산사건을 전후한 일본의 한중 양국인 이간정책으로 궁지에 몰려 10여만명이 고향으로 되돌아갔다"[123]라는, 일제의 조작으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발발했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아가 박계주의 소설 『대지의 성좌』의 경우 만보산이 위치한 장춘현의 수전 개간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묘사하기까지 하였다.[124] 과연 만보산의 조선인들은 일제의 적극적인 부역자였을까, 아니면 학대에 시달리던 가련한 이들이었을까, 정말로 중국인민과 더불어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적 관계에 있었을까?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의 '본질'은 중국-일본의 충돌인가, 조선인-중국인의 갈등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제국주의-피압박민족의 대립은 아니었는가?

5. 맺음말

여기까지 필자는 a.만보산사건-배화사건 직후의 신문잡지, b.만주사변 이후 발간된 서적, c.현대중국에서 작성된 회고기록, d.오늘날 중국의 역사서술이라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1931년의 만보산사건과 배화사건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대략적이나마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사료를 남긴 이들의 다양성과 6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두 사건 모두를 '일제의 음모와

121) 김준현, 「한국의 문학/지식장에서 만보산사건이 기억되어 온 몇 가지 방식」, 『한국문학연구』 5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6, 47-55면.
122) 「조중양족친선」, 『동아일보』, 1945.12.05.
123) 「외국인, 이땅에서 사는 그들의 어제와 오늘-화교」, 『경향신문』, (1968.09.30).
124) 김준현, 위의 글, 2016, 55-59면.

계획적인 침략'으로 간주하고, 또한 '일제의 장기적인 중국침략'이라는 서사 속에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인식이, 공통적이면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인식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음모설을 뒷받침한 근거들, 이를테면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만주로 이주시켜 식민을 실시하였다든지, 배화사건에서 일본인들이 폭동을 유도하고 심지어 지휘했다는 등의 주장 상당수가 과장되거나 진위가 불명확함에도, 다수 중국인들이 마치 당연한 상식과 같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일찍이 중국언론의 만보산사건 보도를 검토했던 선행연구는 1931년 당시 다수의 오보와 사실 왜곡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민족주의적 강박과 함께 열악한 취재환경과, 이해당사자들의 의도적 여론전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125] 이는 설득력 있는 견해이지만 오보를 바로잡기 충분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불명확한 정보에 기반한 침략계획설이 더욱 강해지고 오늘날까지 주류적 역사인식으로 확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발발했던 1931년 7월 시점, 다수의 중국언론은 그를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라는 민족(국가) 차원의 대립구도 속에서 일제의 의도적인 침략음모로 규정했으며, 만주사변과 더불어 대만출병 이래 중국침략의 주요 단계이자 동북강점의 전주로 해석되었다. 우발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이나 한중일 삼국민의 복잡한 관계에 주목하는 대신, 일제의 침략과 중화민족의 저항이라는 거대하지만 단순한 맥락 속에서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이 서술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중일전쟁과 인민공화국 성립을 거치며 더욱 고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경험자들의 기억 또한 사건의 새로운 면모를 부각하기보다 주류적 역사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처럼 일제의 침략만을 강조하는 역사서술 속에서 사건의 다른 주요 당사자였던 조선인들의 존재와 주체성은 크게 축소되었다. 실제 1931년 당시 재만 조선인의 정체성은 친일파에서 독립운동가

125) 손승회, 앞의 글, 2007a, 262-263면.

까지 다양하였고,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민족언론인 『朝鮮日報』와 『東亞日報』의 입장도 달랐으며,[126] 배화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사회단체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127] 하지만 중국인들의 역사인식에서 소수 지사(志士)를 제외한 조선인들은 일제의 조종을 받는 피동적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조선인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은 분열적(다층적)이었으니, 한편으로 일제의 억압에 시달리는 조선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반제국주의 투쟁의 동지로 여겼으나, 동시에 조선인들을 어리석은 망국노(亡國奴)로 멸시하거나, 일제의 앞잡이로 간주하여 증오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조선(인)을 중국(인) 및 일본(인)과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 않았을까 싶다. 진보적 중국인들이 주창했던 반제국주의 민족연대조차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중국(중화민족)이었고, 조선을 전통적인 중국의 속국이자 장차 되찾아야 하는 실지(失地)로 여기는, 일종의 대국주의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필자는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중국과 일본의 대결로 파악하는 인식이 곧바로 한국인에 대한 동정이나 우호로 이어졌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조선(인)과 직접 관계된 사건을 다루면서도, 조선(인)의 존재와 주체성을 지우거나 배경으로 취급하는, 일본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하대(下待)는 아니었나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사견을 덧붙이자면 필자는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주류적 관점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현대중국의 공식적 입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위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많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이란 '중국이 조선(북한)을 지원하여 미국에 대항한 전쟁'에 가깝다.[128]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라는 명확한 선악의 대립구도를 기반으로, 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나쁜 조선

126) 민두기, 앞의 글, 1999, 171-172면.
127) 장세윤, 「만보산사건 전후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225-228면.
128) 오늘날 중국의 한국전쟁(항미원조)에 대한 기억과 서술(서사)에 대해서는 백지운, 『항미원조 :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2023.

인(남한)과 연대와 동정의 대상인 착한 조선인(북한)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한 모두 근본적으로는 강대국에 종속된 존재이거나 미중전쟁의 배경으로 다루어질 뿐이라는 점에서도, 만보산사건-배화사건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인식과 적잖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조선)에 대한 중국인들의 오랜 고정관념과 한중 상호인식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사료
『大公報』
『東北商工日報』
『東三省民報』
『北平晨報』
『時事新報』
『申報』
『中央日報』
『華北日報』
『경향신문』
『조선일보』
『國民週刊』
『宣傳週報』
『新民旬刊』
『人生半月刊』
『日本研究』
『中國雜誌』
『互助週刊』
林伯修・鄧初民,『日本與中國』崑崙書店, 1933.
何西亞,『東北視察記』現代書局, 1932.
許宅仁,『中日的舊恨與新仇』中華書局, 1932.
國民革命軍第四集團軍總司令部政治訓練處,『帝國主義侵略中國史略』, 1932(推定).
梁又銘 編,『日本侵略中國史畫(上)』通俗畫集編輯社, 1933.
中國國民黨河南省黨務指導委員會,『日本侵略中國實錄』1931.
陳冷生 外,『中國國恥史研究概要』福建省保安處幹部訓練所, 1932(推定).
韓貴青 編,『反日警鐸』河南省立民衆教育館編輯部, 1932.
吉林省政協文史資料委員會,『9.18事變資料匯編』吉林文史出版社, 1991.
長春市地方史志編纂委員會,『長春黨史資料(第2輯)』長春市地方史志編纂委員會, 1987.
中國國民黨遼寧省黨務指導委員會宣傳科 編,『日本帝國主義的陰謀：萬寶山事件與朝鮮仇華狂潮』年度不明.
김춘선 주필,『중국조선족사료전집(이주사12권)』연변인민출판사, 2015.
박영석 역,『리턴보고서』탐구당, 1986.
중국조선족청년학회,『중국조선족이민실록』연변인민출판사, 1992.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박선영 역,『중일문제의 진상』동북아역사재단, 2009.

연구논저
강진아,「영국 외교문서로 재구성한 1931년 만보산사건과 조선 반중폭동」,『동양사학연구』156,

동양사학회, 2021.
강진아, 「조선총독부의 화교 노동자 입국 관리와 중국언론」, 『중국근현대사연구』 59, 중국근현대사학회, 2013.
김주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만보산사건 인식과 대응」, 『동국사학』 7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김준현, 「한국의 문학/지식장에서 만보산사건이 기억되어 온 몇 가지 방식」, 『한국문학연구』 5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6.
김창호, 「동아시아 타자형상 비교연구」, 『중국현대문학』 31,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4.
민두기, 「만보산사건과 한국언론의 대응」, 『동양사학연구』 65, 동양사학회, 1999.
박영석, 『만보산사건 연구-일제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아세아문화사, 1978.
박영준, 『제국일본의 전쟁, 1868-1945』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배한극 외, 「중국구술사의 최근 연구동향」, 『역사교육논집』 44, 역사교육학회, 2010.
백지운, 『항미원조 : 중국인들의 한국전쟁』 창비, 2023.
손승회, 「만보산사건과 중국의 언론」, 『역사문화연구』 28,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07a.
손승회, 「지역너머의 만보산사건」, 『인문연구』 53,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b.
유신순, 신승하 외 역, 『만주사변기의 중일외교사』 고려원, 1994.
유창진 · 정해리, 「역사서사에서 문학서사로」, 『중국인문과학』 53, 중국인문학회, 2013.
유필규, 「만주국시기 한인의 강제이주와 집단부락 연구」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윤상원, 「만보산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윤상원, 「한국 역사학계의 만보산사건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문학연구』 51,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6.
윤택림, 「한국 근현대사 연구동향 : 구술사와 한국 현대사」, 『현대사광장』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윤휘탁, 「근대 조선인의 만주농촌체험과 민족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윤휘탁, 「만보산사건 전후 동북아의 민족관계와 민족모순」, 『역사학보』 210, 역사학회, 2011.
윤휘탁, 「침략과 저항의 사이에서」, 『한국사학보』 19, 고려사학회, 2005.
이은상, 「식민지 조선 평양화교의 실태」, 『동양학』 87,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2.
이은상, 「원산화교와 배화폭동」, 『중국근현대사연구』 72, 중국근현대사학회, 2016.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 『중국사연구』 31, 중국사학회, 2004.
이정희,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동양사학연구』 135, 동양사학회, 2016.
이정희, 『한반도 화교사』 동아시아, 2018.
이준식, 「만보산사건과 중국인의 조선인식」,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장세윤, 「만보산사건 전후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정병욱, 「식민지 조선의 반중국인 폭동과 도시 하층민」, 『역사와 담론』 73, 호서사학회, 2014.
정혜경, 「구술사 : 기록에서 역사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한일민족문제학회, 2015.
최병도, 「만보산사건 직후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일제의 대응」, 『한국사연구』 156, 한국사연구회, 2012.

한상협, 「1931년 반중폭동의 재검토」, 『동양사학연구』 167, 동양사학회, 2024.

張憲文 等, 『中華民國史(第2卷)』 南京大學出版社, 2005.
曾業英 等, 『中華民國史(第7卷)』 中華書局, 2011.
唐曉輝, 『九一八事變(電子書)』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15.
楊奎松, 『中國近代史通史: 第8卷(電子書)』 江蘇人民出版社, 2009.

【Abstract】

Chinese Perceptions of the 1931 Wanpaoshan Incident and Anti-Chinese riots : On the historical narrative of Japanese Imperialism

Lee, Yong-un*

This paper researches on Chinese perceptions of the Wanpaoshan Incident and anti-Chinese riots in colonial Korea which erupted in 1931(both incidents are referred to as the Wanpaoshan Incident). The study examined how Chinese framed the incidents and placed them in a long-term historical narrative, surveying many sources ranging from newspapers and magazines in the moment of the incident, nationalist writings in 1930s after the Mukden Incident, to retrospective materials from the 1980s and 1990s. Most importantly noted that different narratives and framing of a particular incident could result in various historical perspectiv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despite the diversity of writers and the passage of sixty years,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understanding the two incidents as the result of Japanese conspiracy and planned invasions, and to attribute meaning to the Wanpaoshan Incident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Japanese imperialism in China. In July 1931, much of the Chinese press viewed the Wanpaoshan Incident in the context of the national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It was also seen as a critical step in Japanese imperialism's invasion of China since the Meiji Era, and the beginning of its occupation of the Northeast China(Manchuria), Rather than considering the contingency of the incident or the complicated conflicts of interest among three peoples,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the Wanpaoshan Incident was described within a simplistic long-term narrative of Japanese invasion and Chinese righteous resistance. This perception was further solidified through the Second Sino-Japanese War(1937-1945)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fore, it is repeated in a certain form in the memoirs of those who experienced the incident, as well as in the writings of Chinese historians today. Meanwhile, the Chinese view of Koreans was complex and

* Seoul National Univ.

ambivalent. They sympathized with Koreans oppressed by Japanese colonialism and saw them as friends in the anti-imperialism struggles, but at the same time they despised or hated Koreans, seeing them as collaborators for Japanese imperialism.

Keywords: Wanpaoshan Incident, Anti-Chinese riots(1931), Mukden Incident, Historical Perspective, Korea-China Relations, China-Japan Relations

접수일: 2025.3.31. || 심사일: 2025.05.14. || 게재확정일: 2025.05.14.